



2020년 사순절

주의 십자가가 사랑하리...

2월 26일(수) ~ 4월 11일(토)

가정예배 주간묵상집

- 둘째주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6 재의 수요일	27 2일	28 3일	29 4일
3/1 사순절 1주	2 5일차	3 6일차	4 7일차	5 8일차	6 9일차	7 10일차
8 사순절 2주	9 11일	10 12일	11 13일	12 14일	13 15일	14 16일
15 사순절 3주	16 17일	17 18일	18 19일	19 20일	20 21일	21 22일
22 사순절 4주	23 23일	24 24일	25 25일	26 26일	27 27일	28 28일
29 사순절 5주	30 29일	31 30일	1/4 31일	2 32일	3 33일	4 34일
5 종려 주일	6 35일	7 36일	8 37일	9 38일	10 39일	11 40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6~10)						
12 부활 주일	=> 총동원주일					

눅 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들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죄악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존재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나시오라는 분은 죄란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 존경과 순종하기위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애매모호한 욕망, 우리를 옴아매는 두려움, 우리 자신만을 찾는 이기주의,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본능들, 무질서한 우리의 생각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이기주의의 중력에 눌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내 존재의 뿌리 속에 있는 심각한 죄악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속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입니까?

요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다시 증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재(先在)성 및 하나님과의 일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귀(承貴)를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귀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이 당신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의 종 된 일이 없는데, 어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며 영똥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시되 영적으로는 아닌 것과 그들의 악함이 그들 ‘아비’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아비 논쟁이 시작되는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1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속에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고, 또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며, 자기를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앞에서 죄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과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생지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적인 분열을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바울에 의해 길게 묘사된 로마서1-11장의 이 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때에는 이방인 존재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이 존재하고 있어, 내 속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하여 그것으로 충분한 양 거만을 떨고 있는가 하면, 내 속의 이방인은 자아를 왕으로 삼고 결국 죽음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묵상해 봅시다.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는 즐거운 잔칫집의 분위기는 누가 15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본 배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잔치의 동기를 세가지 비유로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한 닢,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상실과 회복, 그리고 축제와 환희라는 주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과도 연결해볼 수 있는데요,

작은 아들의 죄는 자유를 행사하여 유산의 몫을 한꺼번에 차지하는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는 나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가 이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아버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빵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지....”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랄 데 없는 유대인 큰 아들은 이 사랑에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옳음을 핑계로 권리를 요구하고 또 동시에 제 동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네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잘못의 횡수가 얼마나 빈번하였던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홉째날(3.6)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방정교회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무한히 반복하더라도 그 진리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종일토록 이 기도문을 반복하며 묵상해 봅시다.

때때로 우리의 죄에 대한 느낌들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원통함, 실망, 죄책감, 타자와의 비교, 불건전한 슬픔 등이 생기면 그것들은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정은 용기와 부드러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사랑을 향해 좀 더 자신을 개방하고 싶은 욕망 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으나, 동시에 완전한 의로움으로 부름 받았습시다.

“깊은 구렁 속에서 나는 주님께 부르짖고 있나이다.”(시편130).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시편 18:20)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보십시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모시고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으며, 어떻게 영원한 삶에서 현세적인 죽음으로 기꺼이 낮아지셨는지.”

다음에 내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자문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 51: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토스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지옥 속에 의식적으로 머물라. 그러나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이를 위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 구세주로 계신다. 그분은 또 나를 형제애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그분께 내 존재를 드리고 또 그분은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와 인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하게 내리는 법입니다.(롬5)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깊은 곳, “내 나쁜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렁텅이로 내려감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확시켜 줍니다. 그 내려감은 사랑에 의해 이끌려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 안에서 악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변화시켜가게 됩니다.

“나를 주님의 면전에서 내치지 마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구원은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가장 깊은 곳, 악한 생각이 가득한 곳,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 곳으로 깊이 내려가 봅시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총을 발견합시다.

주간묵상집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1. 가정예배

- 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②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
- ③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눔 ④ 묵상 글을 함께 읽습니다.
- 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심기도합니다.

2.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마 17:5)

3. 중보기도

- ① 회개: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합니다.
- ② 교회의 평강과 영적 회복,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③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 ④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 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메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 ⑥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